



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 셋째날 회무에서 총대들은 목회자 정년 연장안을 전자 표결 끝에 최종 부결했다. 스크린 중간에 구체적 정년 연장안이 표시된 가운데 이에 대한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목회자 정년 연장 이번에도 부결

제111회 총회 셋째날 오후 회무서 장시간 토론 끝에 결정

예장 합동 소속 목회자(합존직) 정년인 현행 만 70세를 폐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현의안들이 또 발의됐으나 이번에도 부결됐다.

제111회 정기총회 셋째날 오후 회무에서 정치부는 해당 현의안들을 본회에서 다루줄 것을 요청했고, 총대들은 이에 대한 토론을 장시간 펼쳤다.

가장 먼저 정영교 총회장이 ‘조건부 정년 연장’을 제안했다. 정 총회장은 농어촌 교회나 도시의 작은 교회들에선 목회자

정년 연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정년을 만 70세로 정한 현행 헌법은 유지하되 개교회가 정관에서 정할 경우 노회의 허락으로 만 7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단 이럴 경우 교단 공직은 맡을 수 없게 하고, 2028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정 총회장은 “저는 2년 후에 은퇴하기 위해 동사목사까지 뽑았다”며 “일각에선 제 사단의 정년 때문에 연장하려 한다고 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 단지 농어촌 교

회와 도시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생각해 (정년 연장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총대는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총회 헌법에는 헌법 개정안을 현의해 심의의결하려고 하면 전국 노회 3분의 1 이상, 적어도 55개 노회가 현의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번 안건은 7개 노회가 현의했다. 요건 불충분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교회 정관으로 헌법이 정한 것을 어길 수는 없다”며 총회장 제안에 반대한 총대도 있었다. 아울러 “나이만 연장하면 농어촌 교회 문제가 해결되나,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 나이가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현행 만 70세도 일반 사회와 비교하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다른 총대는 현행 만 70세 정년은 과거 남자의 기대수명이 60대 초반일 때 정한 것이라며, 오늘날 기대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만큼 정년 연장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토론 끝에 정영교 총회장의 제안을 두고 전자 투표에 들어가 찬성 425표, 반대 477표로 총대들은 결국 현행 만 70세 정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통합, ‘여성총대 할당제’ 표결 끝 과반 미달 부결

‘경영위기 신학대학 대응’ 규칙 개정안은 95% 찬성 통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1회 총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도림교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둘째 날 오전 회무에서 ‘여성총대 할당제’ 개정안이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반면 경영위기에 처한 신학대학 구제안과 백주년기념관 부채 상환 방안 등 행정 현안은 가결됐다.

둘째 날 회무에서는 규칙부 보고를 통해 총회 규칙 개정안(정치 제12장 제84조)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다. 해당 안건은

‘총대 10인 이상을 파송하는 노회는 여성총대(목사 또는 장로)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파송’하도록 규정해, 교단 내 여성 리더십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총대 900명 중 찬성 492표, 반대 408표를 기록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으나, 규칙 개정에는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기지 못해 결국 부결 처리됐다.

또한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 지원책 및 재정 관련 안건들은 총대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특히 정부(교육부)로부터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가 30일 이내에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총회 폐회 중이라도 총회 임원회가 신학대의 기본재산 변경을 인준할 수 있도록 한 총회 규칙 제24조 개정안이 참여자 918명 중 찬성 873표(95%)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총회유지재단이 청원한 ‘총회장립100주년기념관 건립 잔여 부채 50.4억 원 상환 방안’도 가결됐다. 기존 개교회 중심의 건축헌금 모금 방식에서 ‘노회별 모금 방식’으로 전격 전환함에 따라, 향후 전국 노회가 협력해 부채 상환에 나서게 된다.

한편, 회무 중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관련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해 총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 부재와 관련해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임 총회장 권위영 목사는 “지난 총회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총



예장통합 제111회 총회 현장의 모습. ©노형구 기자

회장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대로 교단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노회장 김영봉 목사가 청원한 ‘종교의 자유 수호 관련 시국선언’ 건 역시 총회 임원회에 수임되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고신총회, 손현보 목사 설교 보고서 ‘참고만’ 하기로

찬성 281표·반대 69표로 가결...

손 목사 “일부 설교로 전체 평가 어렵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의 설교를 분석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보고서를 총회의 공식 판단으로 채택하지 않고 참고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제76회 고신총회는 16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회무를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처리 방안을 표결에 부쳤다. 보고서를 ‘참고만 하는 것으로 하자는 안’은 찬성 281표, 반대 69표로 가결됐다.

이번 연구는 제75회 총회가 손 목사의 설교 네 편에 대한 검토를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기면서 시작했다. 교수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 등을 기준으로 해당 설교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설교가 성경 본문보다 정치적 위기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에 무게를 두고, 성경 본문을 정치적 결론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가 알려진 뒤 교단 안에서는 공예배와 설교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네 편의 설교로 한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 전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왔다.

◆ 손현보 목사, 설교 평가 범위와 고신의 역사적 정체성 언급

이날 총회에 참석한 손현보 목사는 총



제76회 고신 총회 석상에서 발언하고 있는 손현보 목사의 모습. ©코람데오닷컴 제공

대들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많은 설교 가운데 일부만으로 전체 설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강해설교와 주해설교, 제목설교 등 설교의 형태가 다양하며 성경에도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서 역시 특정 부분만 떼어 선지자의 전체 메시지를 판단할 수 없다

며, “수천 편” 가운데 네 편의 설교가 자신의 설교와 목회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날 점심시간에 고신역사가기념관을 방문했다며 주기철·주남산·손양원 목사를 언급했다. 신사참배에 저항하고 국가권력과 충돌하면서도 신앙적 신념을 지켰던 선배 목회자들의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손 목사는 “지금 우리 고신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까? 바뀌어졌습니까?”라고 물었다. 자신의 발언과 행동 역시 개인의 정치적 성향뿐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설교자의 자세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구속 당시 입장 설명... 서로 다른 견해의 공존 요청

손 목사는 설교와 관련한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을 원망하기보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설교한 데 대한 대가를 감당하겠다는 태도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법의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 자신은 신앙의 양심에 따른 설교의 대가를 감당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목사가 설교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교단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총대들에게 물었다.

발언 후반에는 교단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목회자들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목사는 “수천 명 목사 중에서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더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라며 정치·작·사회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서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세계로교회의 전도와 세례 등 목회 사역을 소개하며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발언 방식만으로 목회자의 전체 사

역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교단 안에서 공존해야 한다며 연합과 포용을 요청했다.

총회는 논의 끝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제75회 총회의 위임으로 진행된 손현보 목사의 설교 네 편에 대한 연구는 총회의 공식 판단으로 채택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남게 됐다. 장요한 기자

국제선교성경대학 세운
다... 발기인대회 개최 >> 7면

BCGN, 20주년... “변
치 않는 복음 전할 것” >> 24면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에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